

작품 내용

제 목	작은 날개들의 꿈을 위해
내 용	이상하죠,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말할 수 없이 낮설어진 저녁의 감동 내 주위를 둘러싼 공기마저 달라지고 일상의 먼지를 털어내며 치유된 순간 놀라지 말아요, 그대 마음속에 아직 따스함이 살아있기 때문이니까 그만의 목소리와 진실 된 몸짓으로 빚어낸 환희와 눈물의 마법이 가슴속에서 피어났기 때문이니까 지켜주어야 해요, 당신의 따스한 손으로 홀로 지낸 새벽의 고독이 스며있는 꿈들을 믿음의 무게를 달고서야 날아오를 수 있는 창작자들의 연약하고 귀한 날개들을 달콤한 유혹에 눈감지 말아주세요 메말랐던 세계의 키가 한 뼘 더 커지고 수만 개의 작은 날개가 울창한 숲으로 자라나 지금의 선택이 일상의 위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고의 울타리 너머 미완의 날개가 따스한 존중을 먹고 자라나 모두의 별을 품에 안고서 활짝 펼쳐진 날갯짓으로 끝없이 날아오르도록